

# ARKO and Asia

## Growing Art Exchanges with Asian Countries

Jang, Yong Suk

Director, International Exchange Team, ARKO

### What Made Us Sit Together?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IFACCA) Mini Summit gave a reception dinner in Adelaide, Australia, in February 2008. Over 30 representatives from 16 countries had dinner together. Then, an interesting scene was created. Participants from Asian countries sat around the same table among the 6 tables, although seats at the tables were not assigned. What made us sit together? Skin color? Language? Geographical proximity? Or certain common factors in culture and history? All these reasons must have worked in a complicated way.

We lived close to each other and were attracted to each other. However, it was more difficult for us to meet each other than meet countries in far away places. This is testified by the actual result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countries in Asia as shown in a report by Arts Council Korea. ‘Thirty Two Years of Cultural Development in Korea’ which will soon be published indicates that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by Arts Council Korea before 2000 was not diverse. Only a small number of such projects aimed at America or Europe. As a consequenc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countries in Asia were almost negligible.

There were reasons for that. The policy priority of Arts Council Korea was to expand creative activity of artists, enhance the right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아시아

아시아 예술 교류협력의 현황과 전망

장용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팀장

### 무엇이 우리를 모여있게 했는가

지난 2008년 2월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IFACCA 소회의 환영만찬 시간, 세계 16개국에서 모인 30여 명이 식사를 할 때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됐다. 누가 지정한 것도 아닌데 전체 여섯 개 테이블 중 한 테이블에 아시아 국가 참석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앉은 것이다. 무엇이 우리를 한데 불러 모은 것일까? 피부색? 언어? 아니면 지리적 근접성이나 문화와 역사의 어떤 공통분모?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까이에 있고 서로 끌리면서도 아시아는 그동안 오히려 멀리 있는 나라보다 서로 만나기가 더 어려웠다. 적어도 그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보인 아시아 교류협력 실적에

나타난 바로는 그렇다. 곧 발간될 예정인 <문예진흥 32년>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우선 그 종류도 많지 않았지만, 그나마 운영된 사업 대부분이 소위 ‘예술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를 겨냥했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실적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 우선순위는 예술가의 창작활동 신장과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민족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등에 있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집행 실적표에서 보듯, 문예진흥기금 전체 사업예산 중 문화예술 국제교류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국제교류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던 만큼, 당연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수준 역시 낮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

of the public to enjoy culture, and preserve and succeed to a national and traditional culture. The table on the right shows how the budget was executed: budget for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e and art is not high in the entire budget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As international exchange was low in priority, the level of cooperation with Asian countries was low, too. The gap between art in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that of ‘developed countries’ was another factor which made Korea places too much emphasis on exchange with America and Europe.

### New Meeting with Neighbors

However, things have become drastically different since 2000. Arts Council Korea’s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Asian countries has become very active. This can be compared to a male-female relationship. They used to seek their ideal partners living a long way off. But as they grow older, they’ve come to find the real character of the person next to them, and the two became lovers very quickly. Of course, this is facilitated by the artistic achievements in Asian countries. It is so natural to meet and cooperate with similar countries in terms of race and culture. But we went a long way around.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ew neighbors are as below.

First of all, China. Exchange projects with



China began in 1995 when Arts Council Korea signed a protocol on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China Federation of Literary and Art Circles(CFLAC). At first, the two countries had regular visits by the personnel of the two organizations. After 2000, the two countries discussed the cooperation projects in earnest based on the mutual trust they had built until then.

Korean performance groups have been sent to the China International Folk Art Festival, a triennial international arts and culture gala, since 1998 except on one occasion. It is the largest international festival in China which introduces culture and art from participating countries. Folk art groups from 22 countries come to the festival to introduce their culture and art. The Park Jaehee Saeam Dance Group was selected in 2007 to perform at the closing ceremony of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중 국제교류 사업비 집행액

Execution of budget on international exchange in the Korean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연도 year	문화예술 국제교류 사업 budget for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s on culture and art	문예진흥기금 전체 사업예산 total budget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1974	—	843,100
1984	198,335 (2.2%)	8,838,661
1994	1,594,466 (9.7%)	16,448,414
2004	2,195,362 (2.7%)	79,985,882
2007	5,137,041 (4.8%)	108,005,072
2008	5,134,524 (6.2%)	83,250,935

단위 천원 / unit USD

1970년대의 경우, 1973년에 출범한 예술위원회의 초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국제교류사업 예산을 따로 분석해내기가 어려웠음.

It was difficult to analyze the budget on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s in the early period of Arts Council Korea as there was not enough material. Arts Council Korea was founded in 1973.

아 국가들과 ‘예술 선진국’들 사이에 놓인 예술 격차도 한 요인이 되어, 미국 유럽 등과의 교류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현상을 부채질했다.

**이웃과의 새로운 만남**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사업은 매우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한다.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협력이 전에 없이 활발해진 것이다. 이 현상을 남녀관계에 비유한다면, 멀리 있는 이상형만 좇던 시절을 지나 줄곧 옆에 있던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하면서 급격히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것과 비슷한 패턴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이렇게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아시아 각국이 그동안 이룬 예술적인 성취가 인정된 측면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슷한 국가들 간에 만나고 협력하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인데, 너무도 오랜 시간, 먼 길을 에둘러오지 않았나 싶다.

새롭게 만난 이웃들과의 교류협력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 중국과의 교류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995년 중국 문련(문학예술계 연합회)과 기관 간 교류협력 의정서를 체결한 때부터 시작되었다. 양국 간 교류는 처음에는 소속 인사들의 정례적인 방문 등 인적 교류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그동안 이룬 신뢰가 바탕이 되어 양국 간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예술위원회는 3년 주기의 중국 국제민간예술제에 1998년부터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한국 공연단을 파견해왔다. 중국 국제민간예술제는 세계 22개국 민속예술 대표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중국 최대의 국제행사로, 2007년 파견된 박재희 새암무용단은 폐막식 공연작품으로 선정되어 중국 중앙방송에 소개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외에도 2007년은 중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이 특히 활발한 해였다. 한중수교 15주년을 기



the Festival and was very successful, being featured on CC-TV in China.

In the year 2007, Korea had activ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China. The Korea-China general meeting of literary people was organized in 2007 to commemorate the 15th anniversary of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event was held in both Korea(October) and China(December). Twenty three literary people including Eun Go, Sok-yong Hwang, Wonil Kim visited China, and 22 famous Chinese writers visited Korea. The project produced a desirable result, and it was planned that the project would be expanded into the “East Asia Literature Forum” in 2008. A big rally will be held in Seoul in September with the subject of “Destiny of

아시아와의 교류에서 작은 계기들이 큰 결실을 맺고 있다. 2007년 몽골을 방문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이 몽골대학장을 만나고 있다.

Small opportunities are making big results in the exchange between ARKO and Asian countries. The staffs of ARKO visiting Mongolia met the president of Mongol University in 2007.

Contemporary Society and Literature” with writers from Korea, China and Japan.

### **Big Results Made by Small Opportunities**

Mongolia is a country that Arts Council Korea has enjoyed a lot of exchanges with, next to China. Arts Council Korea signed a protocol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Arts Council of Mongolia in 2006, and started regular personnel exchanges. Successiv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began with Mongolia immediately in

넘해 치러진 ‘한중문학인대회’가 대표적이다. 한국(10월)과 중국(12월)에서 번갈아 열린 이 행사에 한국에서는 고은, 황석영, 김원일 등 23명이 참가하였고, 중국에서도 유명 문인 모옌, 티에닝 등 22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 행사의 사업성과가 높지 평가돼 2008년에는 ‘동아시아문학포럼’이라는 사업으로 확대되어, 오는 9월 서울에서 ‘현대사회와 문학의 운명’이라는 주제를 걸고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 중국 외에 일본 작가들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큰 대회가 될 전망이다.

### 작은 계기들이 낳는 큰 결실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는 몽골이다. 예술위원회는 2006년 몽골 예술위원회와 기관 간 교류 협력 의정서를 체결하고, 정례적인 인적 교류를 시작하였다. 후속 교류협력사업이 이듬해부터 바로 이루어져, 2007년 8월에 양국 청소년 각 30명씩 총 60명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함께 모여 10일간 예술캠프를 벌였다. 양국의 작가 몇 명도 참여한 이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은 함께 캠프생활을 하면서 예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또한 2008년 9월에는 몽골 예술위원회의 제안으로 한국과 몽골의 시각예술 분야 작가들이 고비사막에서 함께 모여 보름 동안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가 한몽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신장시키고, 작가들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몽골 예술위원회 간 문화예술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로 끝내지 않고, 문학, 음악, 영상 등 매년 다른 장르에서 협력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몽골과의 문화협력사업이 급속도로 진전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몽골 예술위원회 직원들이 ‘아시아문화행정연수 프로그램’ 대상에 선정되어 6개월씩 연수를 받고 갔던 것이 양 기관 간 신뢰형성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시아문화행정연수 프로그램은 해외문화 교류 협력증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 정책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고지원을 받아 2005년부터 해마다 아시아 주요 8개국 문화예술 관련기관 종사자 3~4명씩을 초청해 연수를 시행해오고 있다. 2007년까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에서 각 1명, 미얀마, 필리핀에서 각 2명, 몽골에서 3명 총 12명이 다녀갔고, 2008년 현재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도의 문화예술 기관 종사자가 1명씩 와서 연수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즈베키스탄과 인도가 처음으로 참여해, 향후 이들 국가와의 교류협력의 기틀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지역 편중은 극복해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협력은 2000년 이후 크게 신장되었다. 문예진흥기금 자체사업뿐 아니라, 일반 지원사업의 경우도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크게 증가했다. 2008년 한국 예술인들의 해외 방문 교류사업은 총 44개국을 대상으로, 130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아시아 방문은 48건으로 전체대비 36.9% 수준에 이르렀다.

2007. Sixty youths from the two countries - thirty youths from each country-held an art camp for 10 days in Ulaanbaatar, Mongolia, last August. Several writers joined the camp from both countries, and the youths had a good opportunity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art through the camp.

In September 2008, visual artists of Korea and Mongolia will gather in the Gobi desert for a common project for 15 days as suggested by the Arts Council of Mongolia. It is expected that the project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increase creative activities of artists, build artistic partnerships, and promote cooperative relationships in culture and art between Arts Council Korea and Arts Council of Mongolia. The project will not end this year, but will continue as a cooperative project by changing genres each year to literature, music and videos.

There are many reasons why cultural cooperation with Mongolia is making rapid progress. More than anything else, some staffs of Arts Council of Mongolia were selected and sent to Korea to join the Asia Cultural Administration Training Program for six months.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training has contributed to building a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Asia Cultural Administration Training Program is a national policy projec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overseas countries. Since 2005, Arts Council Korea has been funded by the government to invite 3 to 4 personnel every year from 8 major Asian countries to provide Cultural Administration Training Programs. A total of 12 personnel visited from Bangladesh, Sri Lanka, Thailand(1 person each), Myanmar, the Philippines(2 persons each) and Mongolia(3 persons). As of 2008, 4 personnel from Mongolia, the Philippines, Uzbekistan and India(1 person each) are in the process of training. Uzbekistan and India participated in the program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and we hope to build a base for better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the two countries as well.

## **We Need to Overcome**

### **Regional Concentr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Asian countries have improved remarkably since 2000. Not only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but also the general fund increasing projects targeting Asian regions. For instance, Korean artists are visiting 44 countries in over 130 occasions in 2008. Among them, 48 cases or 36.9% of visits are made to Asian countries.

However, the level of exchange and cooperation are still in their infant stage, and there is much room for further development. First of all, there is a regional concentr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그러나 이 교류협력의 수준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로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 우선 지역적인 편중성을 지적할 수 있다. 교류협력의 대상이 아직은 중국과 몽골, 그리고 이제 관계를 트기 시작한 싱가포르 등 특정 국가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또한 ‘아시아’와 ‘네트워크’에 대한 열망은 높지만, 그 개념과 방향이 아직 불분명다는 점이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올 7월초 아시아 지역국가 간 협력과 관련하여 IFACCA 아시아 지역회의가 한국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행사를 계기로 아시아 예술기관들의 상호 협력 분위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기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싱가포르 예술위원회의 교류협

력을 위한 MOU 체결도 예정되어 있어, 이를 계기로 싱가포르와의 교류협력 사업도 더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는 이들 편중된 몇몇 국가들과의 한정된 교류만이 아닌,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글쓴이 **장용석** 꿈 많던 88년 서울에 올라와 사회학을 시작으로, 예술경영, 그리고 현재는 북한의 문화예술과 정책에 대해 배우고 있다. 9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는 국제 교류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미래의 어느 날 젊은 학생들과 통일한국의 예술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꿈꾸고 있다.

were limited to particular countries such as China, Mongolia and recently, Singapore. Also, Korea is talking about ‘Asia’ and has a great aspiration for a ‘network’ but their concepts and direction are not clear yet, which hinders a systematic approach to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FACCA Asian Chapter Meeting will be held in Seoul, Korea, in early July this year in relation to cooperation among countries in the Asian region. We expect that cooperation among Asian art institutions will be expanded through the Meeting. During the Meeting, Arts Council Korea and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will sign a MOU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such an effort,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Singapore will become active. We expect we can make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more Asian countries not to mention countries we already have such relationships with.

**Jang, Yong Suk** came to Seoul in 1988 full of dreams, and has studied sociology and art management, and currently conducts research on culture and art and their policy in North Korea. He began to work in Arts Council Korea in 1994, and now works as a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Team. He dreams a dream in which he is talking about art from a united Korea and social integration with young students someday in future.

*translated by Park, Chang Young*